

녹색기후기금, 한국의 기후행동 의지에 감사

- 녹색기후기금(GCF), 한국의 3억불 공여 발표에 환영과 감사 입장문 공개

9월 9일(토)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녹색기후기금 2차 재원보충 3억불 공약에 대해 녹색기후기금(GCF)*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 **Green Climate Fund**: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인천 송도에 본부가 설립된 세계 최대 기후기금

입장문에서 마팔다 두아르떼(Mafalda Duarte)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은 1차 재원보충 공약액의 1.5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약에 깊이 감사한다는 뜻을 전하며, 이번 공약은 “한국 정부의 기후행동 의지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의 기후대응 노력에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아르떼 사무총장은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 동참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기후기금은 한국 정부의 발 빠른 공약이 녹색기후기금(GCF) 2차 재원보충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모나코, 캐나다, 덴마크에 이어 일곱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녹색기후기금 2차 재원보충 조기 공약(early pledge)에 해당한다. 2차 재원보충 공식 공약 절차는 오는 10월 5일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고위급 공약회의에서 종료된다.

* 녹색기후기금은 초기재원 및 1차 재원보충(20~23년)을 통해 총 203억불을 조성했으며, 우리 정부는 초기(1억불)와 1차(2억불) 합산 3억불 공여, 2차 재원보충에(24~27) 3억불 공약

김재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의 발전은 유치국의 기후대응 분야 위상 제고와도 직결된다.”고 하며, 앞으로도 녹색기후기금이 기후협력을 선도하는 국제기구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녹색기후기금 누리집에 게재된 입장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greenclimate.fund/news/republic-korea-commits-significant-increase-support-gcf>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혜경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윤영준 (yoonyj95@korea.kr)